

핵심주제

• 2018 동방경제포럼에서
3 조 5000 억 루블 규모의
투자계약들 체결 예상

•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청
오스트리아 빈에 지사 설립

• '콜마르'사, 아쿠티아에
'데니솅스카야' 가공공장 가동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 년 4 월 25 일, RIA News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산 상품 무역관 개설

해당 컨셉을 크루티코프 극동개발부 차관과 이관근 북한 대외경제부 장관이 논의하였다. 무역관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영내에 개설될 예정이다. 무역관 지점들을 모스크바와 평양에 개설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북한측은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무역관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상품 목록을 전달하였으며 식품, 전자재, 약품, 의료기구, 향수, 섬유, 전자제품, 의류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년에 한번 무역관에서 북한 상품 및 서비스 전시회를 무역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https://ria.ru/economy/20180425/1519349121.html>

2018 년 4 월 24 일, Lenta

2018 동방경제포럼에서 3 조 5000 억 루블 규모의 투자계약들 체결 예상

제 4 회 동방경제포럼 준비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에서 '2017 년 극동 투자 성장 17.1%: 비결과 전망' 주제로 전문가 원탁회의가 있었다. 행사에서 2018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될 극동개발 신규 정책들이 소개되었다.

동방경제포럼 공식 일정 중 한 파트는 미래산업을 주제로 향후 5~6 년간 극동 경제성장을 주도할 분야들을 다룬다. 또한 아태지역 국가들과 늘 진행해 오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포함하여 유럽, 인도, 베트남, 남아공 사업가들과 함께 원탁회의들이 계획되어있다.

<https://lenta.ru/news/2018/04/24/soglashenii35>

2018 년 4 월 19 일, TASS

17 개국 2018 동방경제포럼 참가 확정

영국, 독일, 인도, 캐나다, 사이프러스, 중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연합, 저지 섬, 대한민국, 싱가포르, 미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스위스, 일본이 동방경제포럼 참가를 확정하였다. 초청을 진행하면서 총 3974 명에게 초대장을 송부하였고 이 중 러시아 사업가들은 1353 명, 외국 사업가들은 2346 명이다.

<http://tass.ru/ekonomika/5141010>

2018 년 4 월 11 일, Interfax

대한민국 포항시 사절단 동방경제포럼 참가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 중심지의 하나인 포항시 이강덕 시장이 이끄는 사절단이 방문할 예정이다. 사절단에 포항시청 관계자, 시의원, 상공회의소 관계자, 사업가들과 기자들이 포함된다. 한국측은 2018 동방경제포럼 참가를 통해 한러 양국간 호혜적 경제협력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http://www.interfax.ru/events/news/607987>

2018 년 4 월 4 일, 'Komsomolskaya Pravda'

제 4 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루스키' 테크노파크 혁신 프로젝트 발표 예정

극동 혁신 개발을 위한 우수 프로젝트들이 별도의 특별세션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테크노파크가 조성된 2017 년 9 월부터 극동 6 개 지역들의 37 개 기업들이 입주하였다. 2018 년 5 월 31 일에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선발 1 단계가 완료된다.

<https://www.kp.ru/daily/26814/3850768>

극동 국가정책

2018 년 4 월 24 일, 'Rossiskaya Gazeta'

극동에서 전자비자 1 만 3 천건 발급

극동 지역으로 입국 시 전자비자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으로 양국 국민들에게 총 11000 건 발급이 되었다. 18 개국 국민들은 전자비자로 연해주, 캄차카, 사할린을 방문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국회에서 극동의 다른 지역들에도 전자비자 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https://rg.ru/2018/04/24/reg-dfo/na-dalнем-vostoke-vydano-pochti-13-tysiach-elektronnyh-viz.html>

2018 년 4 월 20 일, 'Argumenti i facti'

하바롭스크에서 중국 투자자의 날 행사 진행

행사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10 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논의되었으며 해양 및 육로 물류 인프라, 축산단지건설, 바다양식업 발전, 의료 및 농업분야 협력이 논의되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중국 대기업 경영인들과의 협상에 참여하였다. 부총리에 의하면 러시아와 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사업계가 논의 단계에서 실질적인 계획 실행 단계로 전환한 모습을 이번 만남을 통해 보여주었다.

2018 년 4 월 19 일, TASS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청 오스트리아 빈에 지사 설립

신규 지사 설립은 오스트리아 투자자 풀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갈루시카 장관이 올해 4 월 19 일 알타 국제 경제포럼에서 밝혔다. 현재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청 지사들은 북경과 상하이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서울, 도쿄, 인도에도 설립이 될 전망이다.

<http://tass.ru/ekonomika/5142991>

극동 경제

2018 년 4 월 2 일, 'Komsomolskaya Pravda'

중국 투자자, 연해주 벽돌공장에 27 억 루블 투자

'슝장 콘트리트 컴포넌츠'사가 연간 200 만톤의 내화 방수 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프리아무르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서 추진된다. 공장의 운영을 위해서 시멘트 원료 산지 개발이 필요하다. 투자프로젝트는 3 년에 걸쳐서 추진될 전망이다.

<https://www.amur.kp.ru/online/news/3069636>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8 년 4 월 26 일, 'Interfax'

'콜마르'사, 야쿠티아에 '데니슈스카야' 가공공장 가동

연간 600 만톤의 석탄 가공능력을 보유한 신규 산업체가 불과 10 개월안에 '유즈나야 야쿠티아' 선도개발구역에 들어섰다. 공장 가동률 확보를 위해 '보스토치노-데니슈스카야' 광산을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러시아에서는 최초로 환경오염이 일절 없는 Beijing CATIC Industry Limited 사가 개발한 석탄 가공기술이 적용되었다. 코크스는 국내 및 아태지역 시장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929421>